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 딥스카이

### 지은이

강현옥, 최승용, 우지현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아443.1-강94ㄷ

딥스카이는 맨눈으로 보기 힘든 멀고 깊은 우주 속의 천체를 말한다. 성운과 성단, 은하가 딥스카이에 속한다. 이 책은 숨겨져 있던 더욱 화려한 우주인 딥스카이의 세계를 공개하고 있다. 딥스카이는 눈으로 직접 보거나 색을 알아볼 수 없어 관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 딥스카이 사진 전문가 최승용 박사의 사진을 통해 더욱 화려하고 멋진 딥스카이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행성, 태양계, 별, 은하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딥스카이를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말머리 성운, 장미 성운, 아령 성운, 초승달 성운, 원숭이 성운, 러닝맨 성운 등 화려하고 다양한 모양의 딥스카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러스트레이터 우지현의 재치 있는 그림은 우주와 딥스카이를 더욱 재미있게 만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우주 탐험의 역사가 궁금해!

### 지은이

글터 반딧불, 장경섭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아443.1-글884 0

책은 인류가 먼 옛날부터 가졌던 우주에 대한 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우주 탐험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다. 로켓의 개발에서 인공위성 발사, 우주 유영, 달 탐사, 우주정거장, 우주왕복선, 더 먼 행성 탐험에 이르기까지 우주 탐험의 역사를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흥미진진한 내용과 더불어 만화적 구성을 응용한 밝고 화사한 색감의 일러스트 화면이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에는 밑줄 긋기를 해놓아서 중요한 사항을 더욱 기억하기 쉽게 꾸며 놓았다. 흥미로운 주제와 술술 잘 읽히는 글, 눈에 띄는 신선한 그림과 편집 장치 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경쾌하게 집중하며 '우주 탐험의 역사'를 잘 새겨들 수 있도록 했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광활한 우주 대탐험

### 지은이

앤 맥레이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아443.1-맥294 7

양계를 이루는 행성과 소행성은 무엇이 있는지, 태양계 끝의 카이퍼대와 오르트 구름은 무엇인지, 태양계 밖에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탐사선을 통해 얻는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탐사와 탐사선의 위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앞으로 우주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연구와 탐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학생들의 탐사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작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넣어, 최근까지 이어지는 우주탐사에 대해 알려준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우리는 우주 어디쯤 있을까?

### 지은이

제이슨 친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아443.1-친740

〈그랜드 캐니언〉 칼데콧 아너상 수상 작가 제이슨 친의 우주 이야기. 여덟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주로 확장해 가기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그림과 숫자로 모든 걸 비교한다. 아이의 키와 지구와 우주의 크기와 거리를 쉽게 보여 주기 위해 각각의 그림은 크기의 비율에 따라 그려졌다.

또한 태양계와 그 너머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유롭게 그리되, 이런 규모에서는 행성이나 혜성, 소행성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성은 점으로,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는 질감이 있는 바탕으로 표현했다. 우리은하의 그림은 우리은하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은하들의 사진을 참고하여 표현했고, 우리은하 주변은 은하들의 대략적인 위치만 나타냈다. 그 너머의 그림은 작가 제이슨 친의 상상력이 더해졌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별보다 오래된 우리

### 지은이

캐런 폭스, 낸시 데이비스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아443.1-폭58b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폭발하면서 튀어나온 알갱이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고, 가스 구름이 되고, 뜨거운 별로 바뀌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면서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겼습니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빅뱅이 일어났을 때의 물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를 비롯한 우주의 만물을 이루는 물질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GO! GO! 화성 탐험대

### 지은이

뮌리엘 쥐르세, 캄델라 페란데즈

###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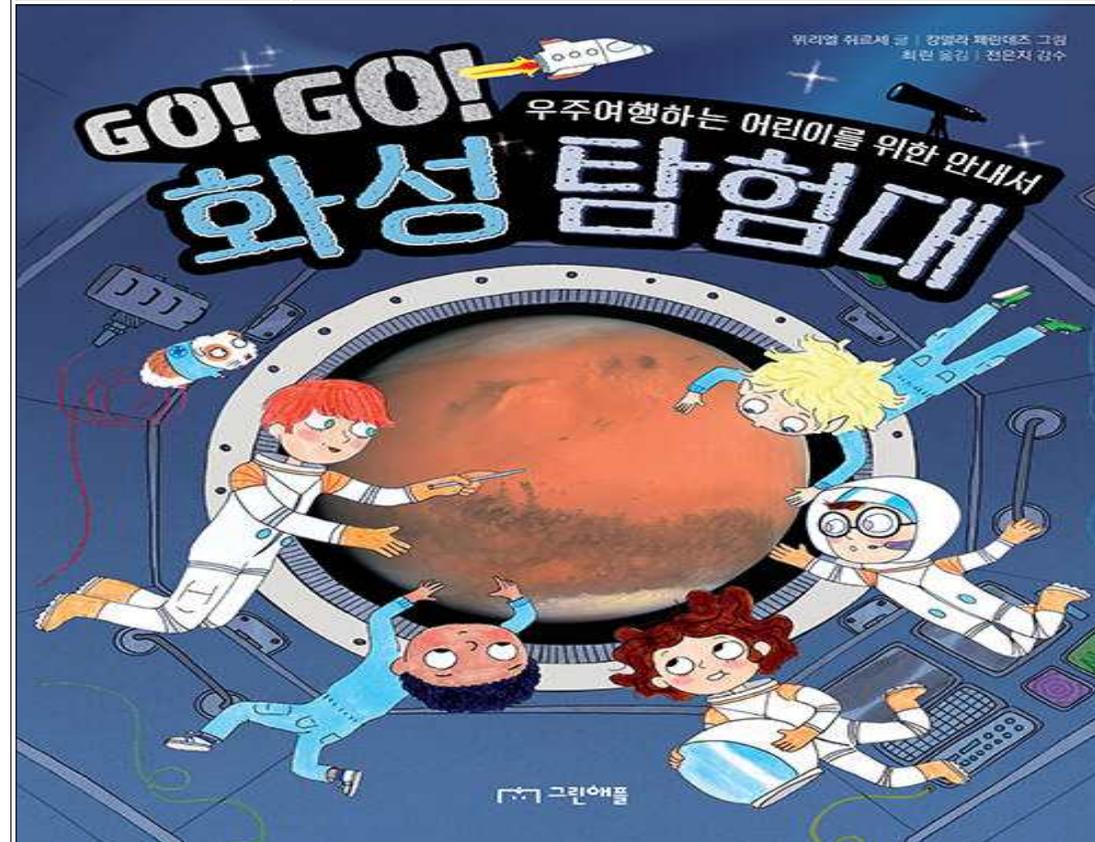
자연과학

### 청구기호

아443.43-쥐297 7

반 친구들과 함께 붉은 행성, 화성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설정으로 ‘준비-이륙-착륙-귀환’이라는 우주여행 과정 속에 과학 지식을 녹여 냈다.

출발 전 여행 가방을 챙기며 화성의 기후와 지리적 특징 등을 학습하고, 다양한 사진 자료를 보며 화성을 관찰한다. 화성행 로켓에 올랐을 때를 상상해 보고, 무중력 우주여행의 특징과 우주 비행사의 자격에 대해 알아본다. 화성에 착륙해서는 의식주를 비롯한 화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탐구한다. 마침내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면서, 아이들은 화성 탐사의 목적과 화성을 지구화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본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책 소개

책 제목

요리조리 열어보는 우주

지은이

롭 로이드 존스, 수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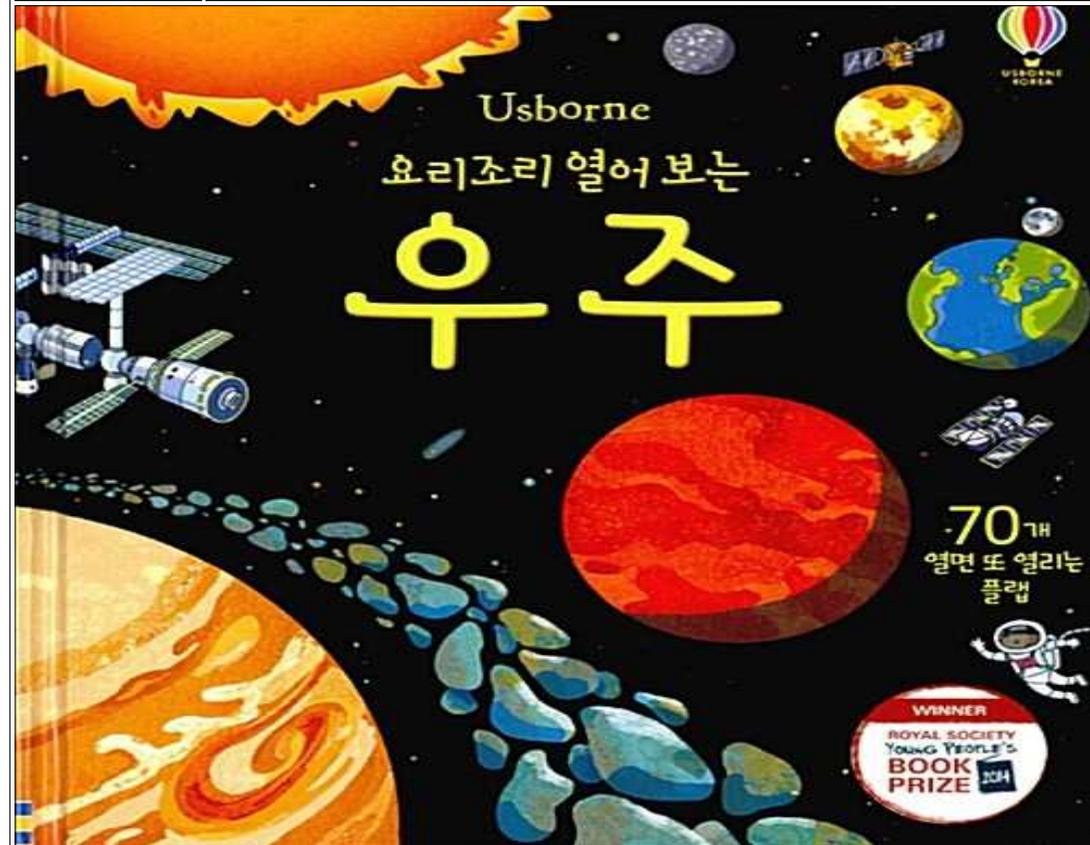
자연과학

청구기호

아443-존57ㅇ

놀이와 학습을 접목한 플랩북 '요리조리 열어 보는' 시리즈는 아이들을 흥미진진한 과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책 속 플랩 70여 개를 하나씩 들추면 지식들이 쓱쓱 튀어나와 아이들의 호기심을 돋우며, 열면 또 열리는 플랩 속 플랩이 점점 더 깊은 탐구심으로 이어지게 도와준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현상부터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이 없어도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풀어나가 초등 교과 과정을 아우르는 지식을 담고 있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책 소개

책 제목

안녕, 나는 달이야!

지은이

스테이시 매카널티, 스티비 루이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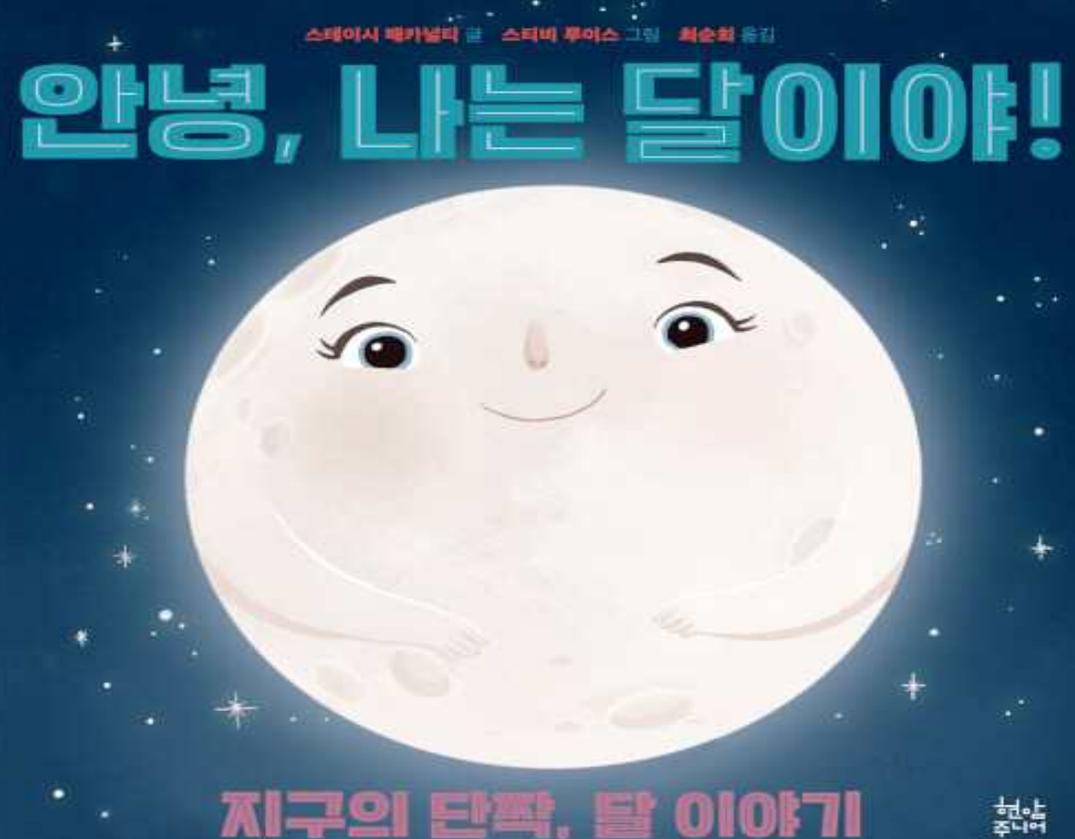
자연과학

청구기호

아445-매872○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달에 관한 중요한 사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정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책을 읽다 보면 달이 언제 생겨났고, 달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부록에서는 달에 관한 미신부터 달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숫자로 보는 달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아내 어떤 연령의 독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천문학 콘서트

### 지은이

이광식

###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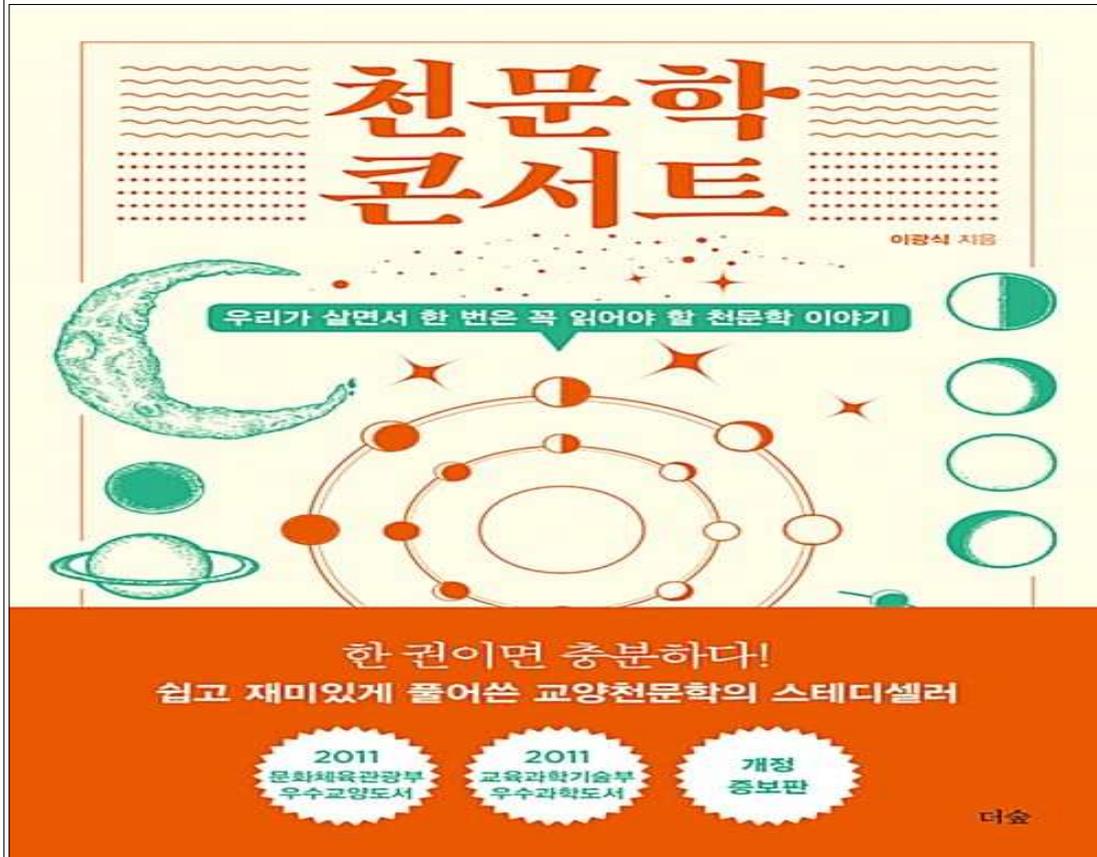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0-이15ㄷ

이 책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의식과 지식이 어떤 확장의 길을 밟아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체물리학의 까다로운 개념들을 최대한 풀어서 썼다.

또한 이 책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사람마다 나름의 우주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세계와 자아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쉽게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 지은이

스티븐 호킹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02-호878ㅎ

30여 개 국가에서 번역 출판이 계약된 스티븐 호킹의 유작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거대한 질문, 빅 퀘스천에 대한 그의 마지막 대답을 모은 책이다. 스티븐 호킹은 이 책에서 '왜 우리는 거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총 10개의 빅 퀘스천에 관해서 답한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서 '호킹 복사' 이론을 비롯하여 상대성이론 등 물리학 이론들을 압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그의 심오한 지혜와 창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가 지구와 인류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구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호킹의 마지막 책!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스티븐 호킹  
배지은 옮김

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s

카치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창문을 열면 우주

### 지은이

문경수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1-문14ㄸ

과학탐험가가 들려주는 최신 우주 소식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인류의 과감한 탐사 기록을 담았다. 라디오 듣듯 짧은 다큐멘터리 보듯, 하루에 한 편씩 인간의 활달한 우주 탐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어느새 태양계 저 너머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진다.

탐험가가 추천하는 지구의 별 보기 좋은 장소에서 달의 뒷면까지, 탐사 로버의 눈으로 본 화성의 분화구부터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를 이루는 얼음까지 인간의 호기심이 가 닿은 무한한 공간을 돌아본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철학 여행

### 책 소개

### 책 제목

코스믹코믹

### 지은이

아메데오 발비, 로사노 피치오니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1-발48ㄴ

20세기 우주과학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 속 과학자들을 빅뱅이론을 완성하는 과정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빅뱅이론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저마다의 퍼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책은 그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두 천문학자가 우연히 초단파를 발견하고 그 소리가 지구가 아닌 저 멀리 우주에서 오는 소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미스터리 소설처럼 흥미진진하다.

책에도 나오듯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점점 더 확실히 알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알아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코스믹코믹>은 천문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도, 물리학자라고 하면 아인슈타인밖에 모르는 일반 독자에게도 우주와 한발자국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입문서가 될 것이다

## COSMICOMIC

코스믹코믹 :  
빅뱅을 발견한 사람들

아메데오 발비 글 / 로사노 피치오니 그림  
김현주 옮김 / 이강환 감수 및 해제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극한의 우주

### 지은이

데비비드 베이커, 토드 래트클리프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1-베69 7

나사의 두 행성과학자가 보여주는 해와 달과 별들의 놀라운 이야기. 두 저자는 우주 가운데서도 지구와 가까운(?)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50곳을 지구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서 '장소'는 특정 장소뿐 아니라 사건이나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와 지구의 극한을 비교, 대조하는 두 저자의 입담과 화려한 사진들에 눈과 귀를 흘리다 보면 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이 책은 우주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지구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자연재해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쳐준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독자는 지구라는 행성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매 장마다 펼쳐진 우주의 극한들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우아한 우주

### 지은이

엘라 프랜시스 샌더스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1-샌24ㅇ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작가 엘라 프랜시스 샌더스의 신작 《우아한 우주》가 출간되었다. 작가는 재치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우주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살핀다. 어렵듯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지나쳐온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작가 특유의 감성적인 필치로 세심하게 다룬다.

한국어판 번역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에세이 작가이자 천문학자인 심채경이 맡았다. 또한 원서보다 커다란 판형과 도톰한 종이를 채택하여, 특별한 그림 51점의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려 했다. “아주 여러 번 다시 펼쳐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스미스소니언 ‘최고의 책 10’ 선정작, 월링 프라이즈 수상작.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코스모스

#### 지은이

칼 세이건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1-세68ㄱ

〈콘택트〉, 〈창백한 푸른 점〉 등의 지은이 칼 세이건의 저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책은 우주, 별, 지구,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매혹과 탐구의 역사를 매끄러운 글과 멋진 사진으로 담아내어, 출간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가장 읽을만한 교양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은 은하계 및 태양계의 모습과 별들의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실들을 밝혀낸 과학자들의 노력, 즉 별자리와 천문학과 우주탐험과 외계와의 교신 연구 등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것인지, 우주의 미래는 어떨 것인지 등의 철학적 질문도 던진다.

6억이 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은 텔레비전 교양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980년 이 책이 출간된 이래, 천문학과 우주탐험의 세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위성 탐사로봇을 착륙시키는가 하면 태양계 밖으로도 탐험위성을 내보냈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 비욘드

### 지은이

크리스 임피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1-임898ㅂ

세계적인 천문학자 크리스 임피가 들려주는 가슴 떨리고 경이로운 우주 탐사의 역사. 저자는 우리가 “현재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이야기한다. 앞으로는 또 어떤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까. 그리고 또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까.

《비욘드》는 ‘우주 탐사’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어떻게 시작되어 얼마나 발전했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준다. 밤하늘을 동경하고 별 사이를 거니는 꿈을 꾸던 독자라면, 이 책에서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HRIS IMPEY

비욘드  
크리스 임피

BEYOND

세계적인  
천문학자  
크리스 임피가  
들려주는  
가슴 떨리고  
경이로운  
우주 탐사의  
역사

인류가  
다다른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다

시공사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경이로운 우주

### 지은이

브라이언 콕스, 앤드루 코헨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1-콕577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을 설명해주는 물리학자 브라이언 콕스의 대중 과학 책이다. 차세대 칼 세이건이라 불리는 저자는 우주에 대해 과학자들이 밝혀낸 몇 가지 법칙을 빛, 물질, 중력, 시간 등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풀어낸다. 아프리카 평원, 캐나다 로키 산맥, 코스타리카 해변, 네팔 힌두 사원 등 지구 곳곳을 누비며,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낭만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시선으로 소개하는 책이다.

우주의 기원, 우주의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인류의 다양하고 심오한 질문도 만날 수 있다. 지구 위에서 직접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물질과 장소를 토대로 거대한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BBC에서 방송된 화제의 과학 다큐멘터리 <경이로운 우주(Wonders of the Universe)>의 단행본 버전이다.



차세대 칼 세이건,  
물리학자 브라이언 콕스의 우주 이야기  
BBC 인기 과학 다큐멘터리,  
<경이로운 우주 Wonders of the Universe>를 한 권의 책으로!

"과학 책을 읽을 때마다 '학교 숙제를 하는 기분'을 느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우주'라는 막강한 콘텐츠에 탁월한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걸작이다."

-가디언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푸른 석양이 지는 별에서

### 지은이

세라 스투어트 존슨

### 분야

자연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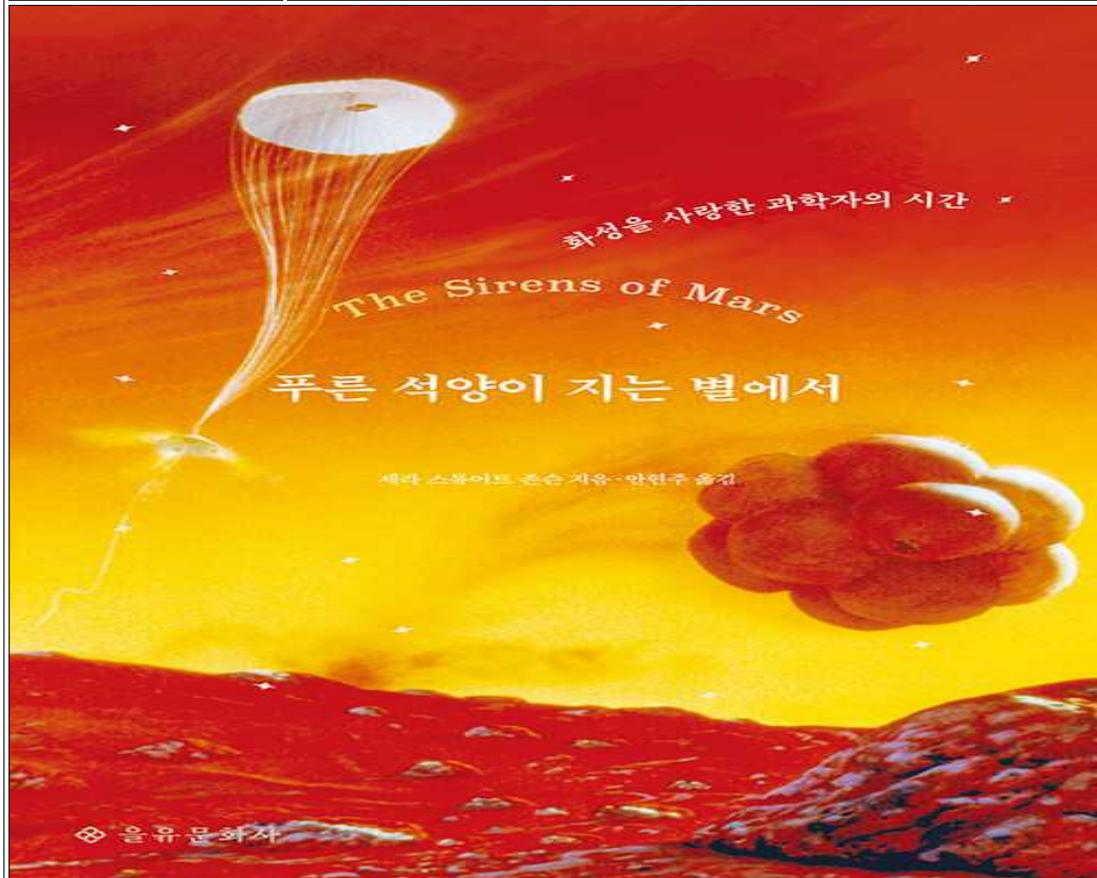
### 청구기호

443.43-존57프

NASA의 화성 탐사 계획에 실제로 참여했던 저자가 화성을 사랑한 다른 이들과의 연대 속에 자신의 삶을 녹여 써 내려간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화성에 관심을 갖고 천문학 분야에 투신한 여성 과학자의 인생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NASA 연구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이야기 하며, 그와 동시에 천체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찰하던 갈릴레이부터 화성 탐사선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의 활동까지 이어지는 화성 탐사의 연대기를 서술한다.

한 사람의 일대기와 화성 탐사의 역사가 나란히 병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한 행성의 탐사에 얽힌 역사와 그 탐사에 참여한 한 인간의 삶을 자연스럽게 겹쳐 바라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자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묘사가 빛을 발한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블랙홀강의

### 지은이

우종학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8875-우75B

블랙홀의 정체는 무엇인가? 100년 넘게 외면받던 '검은 별'이라는 기이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현대 천체물리학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은하중심 거대질량 블랙홀의 기원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어떻게 1,000억 개의 별빛보다 밝은 빛을 뿜어낼 수 있는가?

블랙홀이라는 아이디어의 탄생과 발견의 역사에서 블랙홀의 특성, 블랙홀과 은하의 공동 진화, 블랙홀을 통한 시간 여행, 중력파, '블랙홀 그림자' 사진에 대한 친절한 해설까지. 최전선에서 블랙홀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듣는, 쉽고 재미있는 블랙홀 이야기다. 2019년 출간된 초판에 2020년 블랙홀 연구자들의 노벨물리학상 수상,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관한 설명 등을 추가했다.



블랙홀의 정체, 기원, 특성에서  
블랙홀 연구의 최전선까지  
더 빠져드는 블랙홀 이야기!

2판  
출간

간영사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두근두근 천문학

### 지은이

이광식

### 분야

자연과학

### 청구기호

443-이15ㄷ

청소년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천문학 입문서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천문학 콘서트> <십대, 별과 우주를 사색해야 하는 이유>를 쓴 이광식 저자의 신간. 우주론의 역사부터 다양한 주제로 보는 천문학 개념까지 전작보다 좀 더 깊고 폭넓은 주제로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한다.

우주의 탄생과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은 물론, 빅뱅 우주론과 우주배경복사, 암흑 에너지와 암흑물질과 같은 현대 천체물리학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이론들을 우주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의 하나로 녹여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인듀어런스

### 지은이

스콧 켈리

### 분야

기술과학

### 청구기호

558.9092-켈298 0

23개 언어로 번역된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1년여간 우주체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우주인 스콧 켈리의 자전적 에세이. 그는 지금까지 네 차례 우주비행으로 총 520일을 우주에서 생활했는데, 그중 마지막 비행에서 340일을 체류하며 연속 우주체류 미국인 최장기록을 세웠다.

2015년 3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호를 타고 출발하면서부터 1년 뒤 지구로 귀환하기까지, 스콧 켈리는 직접 보고 겪은 ISS와 우주 공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우주인으로서 수행한 다양한 임무와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는 우주라는 고립된 폐쇄적 공간에 머물며 느낀 것들을 자세하게 썼다.

우주에서의 삶도 역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이 모두 있었는데, 이러한 진솔한 감정들이 담겨 있다. 만년 열등생이었던 그가 베테랑 우주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수많은 노력을 차곡차곡 쌓았기에 가능했다. 우주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스콧 켈리의 이야기는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우주에서 살기, 일하기, 생존하기

### 지은이

톰 존스

### 분야

기술과학

### 청구기호

558.95-존570

전 나사(NASA) 우주 비행사 톰 존스가 우주 비행사 훈련과 우주 탐험 경험을 풀어놓은 책이다. 우주에서의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활발한 대중 강연 활동으로 항공우주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졌던 온갖 질문을 엄선하고 재구성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우주 비행사에게 물어봐(Ask the Astronaut)’라는 원제에서 엿볼 수 있듯 ‘질문-답’ 형식으로 우주 비행에 대한 궁금증을 주제별로 나누어 속 시원히 답해 간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느낌은 어떨까?’, ‘무중력은 어떤 느낌일까?’, ‘우주복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일반인이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400여 가지 질문의 답이 바로 『우주에서 살기, 일하기, 생존하기: 우주 비행사가 들려주는 우주 비행의 모든 것』에 친절히 나와 있다.



# 사서가 소개하는 이 달의 북큐레이션

## [7월의 테마] 우주 탐험

### 책 소개

### 책 제목

우주에서의 삶

### 지은이

팀 피크

### 분야

기술과학

### 청구기호

558.95-피877ㅇ

6살 꼬마부터 물리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의 삶에 대해 궁금했던 수천 가지 질문들을 SNS로 받아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우주비행사 팀 피크가 직접 답변한 흥미진진한 우주 생활 가이드북이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 10분 정도 우주 콧바람을 쐬려면 3억 원을 내야 한다.

벌써 700여 명이 예약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 미션을 끝내고 돌아와 쓴 이 책은 우주의 냄새, 우주의 분위기, 우주에서 살기, 일하기,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경이로운 모습 등이 너무나 실감나게 묘사되어 거의 우주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